

한국 축구의 허리 K3·K4 출범...16일 첫 시즌 개막

완전한 승강제 향한 인프라 구축

K3 목포시청 등 16팀...K4 13팀 참여

한국 축구의 숙원인 '완전한 승강제'의 허리 역할을 할 세미프로 K3·K4리그가 13일 출범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오는 16일 원년 시즌 개막을 앞둔 K3·K4리그 출범식을 열었다.

세미프로리그인 K3·K4리그는 프로리그인 K리그1·K리그2와 아마추어리그의 가교 구실을 할 세미프로리그다.

이미 아마추어리그인 K5, K6, K7이 운영되고 있는 한국 축구는 K3·K4리그의 출범으로 7부까지 이어지는 디비전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다만, K리그2와 K리그3 간, K4리그와 K5리그 간 승강은 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

이번 K3·K4리그 출범은 완전한 승강제를 향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홍명보 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앞으로 프로와의 승강제가 이뤄지면 '한국의 제미미 바디(레스터 시티)'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는 지역 아마추어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특점왕에 등극하는 성공 신화를 쓴 골키퍼다.

K3·K4리그는 당초 2월 26일 출범식을 열고 3월 초 개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다.

16개 팀으로 구성된 K3리그는 라운드 로빈과 스플릿 방식을 혼용해 팀당 22경기를 치른다. 1~4위

◇ 2020 K3·K4리그 참가팀

▲K3리그(16개) =강릉시청, 경주시민축구단, 경주수원, 김포시민축구단, 김해시청, 대전코레일, 목포시청, 부산교통공사, 양주시민축구단, 전주시민축구단, 창원시청, 천안시청, 청주FC, 춘천시민축구단, 평택시민축구단, 화성FC

▲K4리그(13개) =서울노원유나이티드, 서울중앙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양평FC, 여주시민축구단, 울산시민축구단, 이천시민축구단, 충주시민축구단,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진주시민축구단, 고양시민축구단

팀은 챔피언십 시리즈에 나선다.

K4리그에는 13개 팀이 참가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24경기를 치른다.

K3리그 하위 두 팀(15~16위)은 자동 강등, K4리그 상위 두 팀(1~2위)은 자동 승격된다. K3리그 14위 팀은 K4리그 플레이오프(3위~4위 단판 승부) 승자와 단판 승부로 승강을 결정짓는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출범사에서 "프로 선수부터 축구 동호인까지 모두가 디비전시스템 안에서 공존하며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도 진정한 축구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축하 영상에서 "K3·K4리그는 이미 아시아 최정상인 한국 축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20 K3·4리그 출범식에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첫째줄 가운데)과 감독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째줄 왼쪽부터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무이사, 김포시민축구단 고정은 감독, 한국철도축구단 김승희 감독, 정 회장, 천안시축구단 김태영 감독, 화성FC 김학철 감독. /연합뉴스

박성현·최혜진 첫날 동반 라운드

KLPGA 챔피언십 오늘 개막

박성현과 최혜진이 제42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십(총상금 30억원) 1라운드에서 동반 라운드를 치른다.

14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6540야드)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 1라운드 조편성표를 보면 박성현과 최혜진은 이다연과 오후 12시 20분에 1번 홀을 출발한다.

이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국내 프로골프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다.

2017년 US오픈에서 박성현과 최혜진은 나란히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성현은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그 대회에서 일궈냈고, 당시 아마추어 신분이었던 최혜진은 2타 차 단독 2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었다.

최혜진은 지난해에 이어 KLPGA 챔피언십 2연패를 노리며 박성현은 이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2라운드까지 공동 102위 이상의 성

박성현은 KLPGA 챔피언십에 세 번 나왔으나 2014년과 2016년 18위가 최고 성적이다. 박성현의 국내 대회 최근 우승은 2016년 9월 한화금융 클래식이다.

이들과 함께 경기하는 이다연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열린 KLPGA 투어 2020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선수다.

2019시즌에도 한국여자오픈과 아시아나항공 오픈을 제패하는 등 KLPGA 투어에서 통산 5승을 따냈다.

박성현, 최혜진, 이다연 조 바로 앞에서는 이정은, 조아연, 박채윤 조가 경기에 나선다.

2013년 이 대회 우승자 김세영은 오전 8시 20분에 장하나, 임희정과 함께 10번 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하고, 그 바로 앞 조는 김효주 조정민, 박민지로 구성됐다.

출전 선수가 여는 대회에 비해 많은 150명이나 돼 1라운드 첫 조가 오전 6시 20분에 경기를 시작하는 일정이다.

이번 대회는 2라운드까지 공동 102위 이상의 성



13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42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십 미디어 데이에서 최혜진(왼쪽)과 박성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감사사를 전하는 '덕분에 헬리자'에 동참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을 낸 선수들이 3라운드에 나가고, 3라운드 진출자 중 공동 70위까지 4라운드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상금은 출전 선수 전원에게 지급, 최하위인 150위를 해도 624만 6667원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했다. 우승 상금은 2억 2000만원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종합 4위

농어촌형 평가선 보성 1위·담양 2위

전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평가에서 종합 4위에 올랐다.

보성군과 담양군은 '농어촌형' 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모범 시·군으로 선정됐다.

1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서 시·군·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평가는 사업 운영능력(50점), 참여자 만족도(20점), 지도자 업무성과(30점) 항

목에 걸쳐 진행됐다. 전남도체육회는 78.5점으로 종합 4위를 차지했다.

시·군·구체육회의 평가에서도 전남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보성군은 농어촌형에서 87.9점으로 1위, 담양군은 87.5점으로 2위에 올랐다.

보성, 담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금을 지급받는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도체육회의 우수사례를 타지역 시·군·구체육회와 공유하고 2020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체육지도자가 수영장에서 어린이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세계육상연맹 국제대회 8~10월 압축 개최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일정을 중단했던 세계육상연맹이 '국제대회 8월 재개'를 목표로 정했다.

세계육상연맹은 13일 '2020년 국제육상대회 일정표'를 공개했다.

다이아몬드리그, 콘티넨털 투어 골드 일정은 8~10월에 압축해서 시행하는 일정이다. 일정이 짧아 취소한 대회도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8월 12일 핀란드 투르크에서 콘티넨털 투어를 개최한다. 2020년 세계육상연맹 주최하는 첫 국제대회다.

다이아몬드리그 시즌 첫 경기는 8월 15일 모나코에서 치른다.

올해에는 10월 17일 중국 다이아몬드리그까지 총 18차례의 세계육상연맹 주관 국제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물론 코로나19가 여름에도 기승을 부리면 일정은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영국 런던, 스위스 취리히 대회는 아예 취소하기로 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올해는 훈련, 이동 등의 개인차가 크다고 판단해, 랭킹포인트로 선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육상은 세계육상연맹보다 조금 빨리 기지를 펼 수 있다.

대한육상연맹은 2020년 전국육상선수권대회를 6월 25~28일, 정선에서 열기로 하고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본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은퇴 샤라포바 WSJ 웹 세미나 참가 "인생은 마라톤...매일 배워가는 중"

올해 2월 은퇴를 선언한 마리아 샤라포바(33·러시아)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개최한 웹 세미나에 참가해 '제2의 인생'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17살이던 2004년 워싱턴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를 꺾고 세계 테니스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샤라포바는 이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하고 올해 은퇴했다.

2016년 도핑 양성 반응으로 인해 1년 넘게 징계를 받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량과 미모를 겸비한 샤라포바는 형역 시절 상금을 제외한 수입 2억8600만달러(약 3500억원)를 받아 전 종목을 통틀어 역대 여자 선수 최고를 기록했다.

7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캔디 회사 '슈가포바'를 운영 중인 샤라포바는 앞으로는 건축이나 호텔, 리조트, 스파 등의 분야에도 도전해보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샤라포바는 "내가 테니스를 시작할 이후 처음 프로 대회에 나가기까지만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회상하며 "은퇴 이후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선수 때 내가 패배를 당하면 아버지는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멀리 내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세에 워싱턴을 제패하는 등 비교적 일찍 성공한 샤라포바는 "10대 후반이 돼서야 내 인생에 테니스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선수 때 배운 것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도 매일 배워가는 중"이라며 "내가 선수 시절에 하루 24시간을 테니스 경기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흥미를 두고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 매일 코트에 나갈 때 더 집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2관 마이 스파이, 나의 청춘은 너의 것
- 3관 콜 오브 와일드, 시간을 달리는 소녀
- 4관 더 플랫폼
- 5관 호텔 레이크
- 9관 프리즌 이스케이프, 씨 피버
- 7관 씨네커풀 하이쿠! 또 다른 도전, 톰보이 레미제라블: 뮤지컬 콘서트
- 8관 씨네커풀 미니 데이 인 뉴욕, 라라랜드 어쩌다 아스널, 보이콧이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윤한의 그대를 그리다**
5.27. (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